

6장. 옛적 길을 버렸다가 버려진 은과 같이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한 것을 5장에서 밝혔다. 이제 그 결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6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한다.

1. 예루살렘의 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 (6:1-8)

6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라고 한다. 4장에서는 시골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성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으나(4:5-6) 지금은 그 성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에 거기에서부터 도망하라고 한다. 목자로 비유된 침략군이 나무를 베어 흙벽을 쌓거나 밤에 성을 습격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악이 샘 솟그치듯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2. 할례를 받지 않은 귀와 수치를 모르는 자들 (6:9-15)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포도 따는 자의 손처럼 부지런히 손을 돌려서 남은 자를 줍도록 하셨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치’ [혹]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6:10). 그 현상을 보고서 예언자는 여호와와의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 분노를 모든 사람에게 쏟으라고 명한다(6:11-12).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심을 품고 있으며 예언자와 제사장도 거짓을 행한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한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수치를 모른다(6:13-15).

3. 선한 길 대신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 (6:16-21)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보고서 그리로 행하라고 권하신다. 옛적 길은 그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는 선한 길이지만(참조. 신 30:15-20) 그 길을 거절한다. 파수꾼을 통하여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요시아 때에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개혁한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먼 나라에서 가져온 유향이나 향품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형식적인 제사는 있으나 여호와와 율법을 거부한 민족 앞에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이 모두 멸망할 ‘거치는 것’을 두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북방에서 민족이 침입할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한다. 여호와와 그의 길은 평강을 주지만,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받는 ‘거치는 것’은 이 문맥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북방 민족의 침략과 사방에서의 공포 (6:22-26)

하나님께서 흉용하는 바다와 같은 북방 민족으로 그들을 공격하실 것인데 그때에 그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외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서 그들의 손은 힘을 잃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사방에서 공포’ (마골 밍사뱌)라는 말로 묘사한다(참조. 20:3, 10; 46:5; 49:5, 29).

26절에서는 ‘나의 시온의 딸’이 공격을 받는다고 단수로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멸망시키는 자가 홀연히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여서 예언자는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한다. 예언자의 심판 선언은 자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동일시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5. 하나님을 거부하였다가 거부를 당한 민족 (6:27-30)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을 살피는 자와 ‘정련하는 자’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요새’로 번역됨)로 삼아

서 고난 중의 이스라엘을 살피게 하셨다. 그들은 동과 철처럼 완고하여서 좀처럼 바뀔 수 없는 자들이다. 은을 제련할 때는 과정에서 납을 첨가하여 불순물을 함께 제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순수한 은을 구하려고 납을 더하였다. 그렇지만 납이 다 타도록 제련해도 순전한 은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악이 너무 깊어서 정련하여 쓸 만하게 할 수 없고 '내어버린 은'처럼 되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내어버린 은'이 된 것이다(6:30).

목상과 실천:

이스라엘의 거부와 하나님의 거부

예레미야 6장은 북방 민족이 침략하는 장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한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경고도 무시한다. 더러운 것이 묻은 은을 순결하게 하려고 납을 넣어서 정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다. 납이 다 타서 없어지도록 정련해도 불순물은 그대로 붙어 있는 은과 같다. 그렇게 부정된 은은 '거부된 은'이 되어서 던져 버릴 수밖에 없다.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6장에서 '거부'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거부를 당하여 멀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핵심은 마음을 강박케 하여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다. 이것은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여서 주님께 돌아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주님께서 공히 여겨 주시고 새 창조의 일을 하셔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만을 구해야 한다.

6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무엇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1절)
2. 여호와께서는 멸절하실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 여호와께서는 목자로 비유된 침략군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6절)
4.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황무케 되어 거민이 없는 땅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8절)
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0절)
6. 거짓을 행하는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할 터인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13, 14절)
7. 선한 길로 행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않으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8. 여호와께서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무엇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까? (30절)